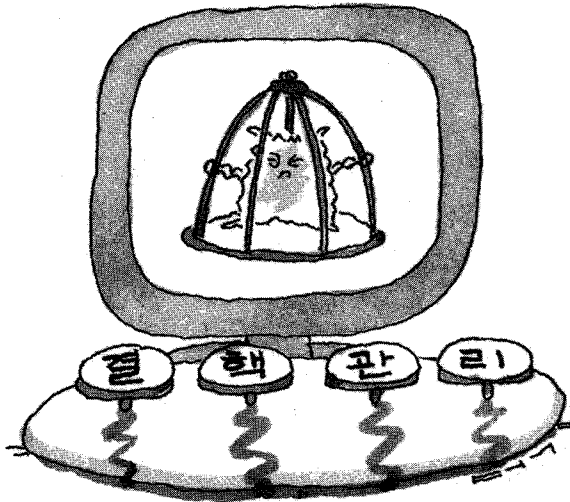


어느 어머니의 눈물

강 윤 주

서울시 학교보건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저 어, ……”

고등학교 1학년생인 ○○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진단받고 2개월째 치료중인 아들의 약처방을 받고 나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저어, 그게…”

예정일보다 보름이상 늦게 그것도 독촉을 받고 나서 약을 타러 온 ○○의 어머니는 좀처럼 말문을 열지 못하였다.

■
아들이 결핵환자라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어머니에게 전에는 없던 원망과
푸념을 늘어 놓더라는 것이다.
■

“혹시 아드님께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 종류의 학생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생긴 눈치로 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던 나의 그 한마디에 그만 ○○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고 말했다.

“아드님 때문에 속 썩는 일이 있으시군요?”

어느새 닭아널 틈도 없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어머니의 눈물에 직감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느껴졌다.

○○의 어머니는 젊었을 때 결핵을 앓은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병치레를 하는 것이라고 자책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아들 ○○이 방학을 이용하여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지원했다. 그런데 아들이 결핵환자라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어머니에게 전에는 없던 원망과 푸념을 늘어 놓더라는 것이다.

“약은 잘 먹고 있나요?”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웬걸요. 꼬박꼬박 챙겨 먹던 결핵약도 먹을 때마다 짜증을 내고 툭하면 빼먹어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예요.”

예상했던 대답이었고 이해가 되는 정황이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의사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나 권고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위의 에피소드는 학교보건원에서 결핵 집단검진 및 재검결과 결핵으로 밝혀진 학생들을 진료하면서 겪었던 몇가지 전형적인 문제상황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결핵은 가족력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부모의 죄책감이 유발되기 쉽고, 특히 자녀들의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이같은 질병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모-자녀의 관계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의사의 입장에서는 바쁜 진료시간에 한사람의 이야기를 장시간 들어 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종종 시간뿐 아니라 많은 노력과 배려가 요구되는 사안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약은 잘 먹어야 돼요. 약을 빼먹으면 나중에 큰일나요.'같은 식의 간단한 충고로 그치는 수가 많을 것이다.

결핵은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염성 질환 가운데 하나이며 완전한 퇴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분야이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어른에 비해 결핵의 유병률도 적고 대부분 초치료 경증 결핵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확실한 질병의 퇴치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성인들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무심한 경우가 많고 더우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증상도 경미하며 치료기간이 긴 질병의 경우에는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치료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결핵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청소년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부모)의 지지가 불충분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교사)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날짜에 방문하지 않는(poor compliance)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연이나 바빠서겠지'라고 넘어가지 않고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인 제3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한번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의료진들이 질병의 생의학적(biomedical) 측면과 함께 정신-사회학적(psycho-social)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책임감을 갖을 때 비로서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매우 속이 상하시겠군요. 아드님도 나이가 아직 어린데 병치료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 여겨지구요.’

■

그러므로
청소년 결핵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청소년 환자 자신 및 가족(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교육이 필요하다.

■

그러나 결핵은 한번에 확실하게 치료해야지 처음 치료를 잘 못하면 그만큼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심지어는 재발하기도 하며 재발해도 쓸 약이 없어 평생 고생하는 난치병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아드님이 결핵에 걸린 것은 물론 어머니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몸관리를 잘 못한 책임도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실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결핵은 확실한 특효약이 있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약을 잘 복용하기만 하면 거의 100% 완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기간 동안 다소간은 고생스럽고 귀찮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일생동안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치료과정을 넘겨야 합니다.

제가 직접 아드님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으니 조만간 시간을 예약하고 아드님과 함께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는 모든 것을 부모에 의존하는 어린이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해 나가야 하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간과정에 놓여 있다.

오늘날 부모의 간섭과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많은 청소년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쉽게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은 의료진과 부모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끌려다니기 보단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치료에 적극 동참하고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갖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료진과 가족의 적절한 지지와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